

보도시점 2024. 7. 24.(수) 17:30 배포 2024. 7. 24.(수) 16:30

자영업자 재취업, 사례별 맞춤형 연계 지원

- 기재부 1차관, 여성인력개발센터를 방문하여 재취업 교육 현장 의견 청취
- 금융·교육·구직·취업 등 재취업까지 단계별 지원제도 간 연계 강화 추진

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은 7.24일(수) 안산여성인력개발센터를 방문하여 자영업자 재취업 교육 현장의 수강생 및 현장 관계자들의 목소리를 듣고, 각종 지원제도 간 연계 강화 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*하였다. 정부는 지난 7.3일 관계부처 합동 「소상공인·자영업자 종합대책」을 발표한 이후 7.15일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본부 방문, 7.18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소상공인 대책 전달체계 이행점검 회의 주재 등 실제 현장에서의 대책 이행상황을 꼼꼼히 점검하고 있다. 이날 방문 또한 이와 같은 취지에서 어렵게 재취업을 결심한 자영업자들이 교육·구직 등의 과정에서 애로가 없는지 점검하고 현장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이루어졌다.

* (참석자)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권대수 부이사장/김현 재기지원실장,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재도약과 장상만 과장,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기획팀 정원희 과장, 안산 고용복지+센터 국민취업지원팀 김성기 팀장, 안산여성인력개발센터 김성민 관장, 자영업자 재취업 교육생 등

< 안산여성인력개발센터 개요 >

- 위치: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광덕대로 271
연혁: '02.2월 여성인력개발센터 지정(경기도 조례), '09.2월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추가 지정
- 수행사업: 직업능력개발훈련, 직무능력향상훈련, 여성 대상 취업지원서비스, 경기도 여성일자리 특화사업(디딤돌취업지원), 희망리턴패키지(재취업교육) 등
- 주요실적: ('21, '24) 민간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, ('23) 고용부 우수 훈련기관 인증, ('23) 59개 교육과정 2천여명 참여, 취업 1,326건 지원(여성새일센터) 등

정부는 내년부터 「소상공인 새출발 희망 프로젝트」를 신설하여 특화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*하고, 폐업 초기 단계부터 재취업 희망 자영업자의 정보를 연계하여 지원을 신속화할 계획이다. 또한, 취업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한 폐업 소상공인 및 이들을 고용한 사업주를 위한 고용 유인책을 마련**하고, 점포 철거, 사업 정리, 채무 조정 등 폐업 관련 지원을 일괄 제공할 예정이다.

* 희망리턴패키지(중기부) 내 마인드셋 사전교육(1개월, 수당 60만원) + 국민취업지원제도(고용부) 내 폐업(예정) 소상공인 특화 심층교육(최대 6개월, 수당 월 50~110만원)

** (재취업자) 최대 6개월간 월 50~110만원 훈련참여수당 + 최대 190만원 취업성공수당(사업주) 지원요건 충족시 1명당 1년간 월 30~60만원의 고용촉진장려금 지급

김 차관은 이날 “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체감도를 결정하는 것이 바로 현장의 실무자 분들”이라며 관계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, “이분들이 사례별로 복잡·다양한 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한 지원제도들을 보다 쉽게 수요자들에게 연계시켜 드릴 수 있도록 지원·촉진할 방안을 마련할 계획”이라고 밝혔다. 또한, 오랜 기간 어려움을 겪었을 폐업 예정 자영업자들이 채무조정이나 사업정리 단계부터 재취업 성공 단계까지의 전 과정에서 원활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현장 이행상황을 지속적으로 세밀하게 살펴볼 것임을 강조하였다.

담당 부서	민생안정지원단	책임자	팀 장	강창기 (044-215-2861)
		담당자	서기관	우창훈 (wchang@korea.kr)
협조 부서	중소벤처기업부	책임자	과 장	장상만 (044-204-7850)
		담당자	사무관	장지원 (jiwon0612@korea.kr)
	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기획팀	책임자	과 장	정원희 (044-202-7193)
		담당자	사무관	김정탁 (taka10@korea.kr)